

서유럽 주식시장 동향(1월) 및 2월 전망(2018.02.02)

김현진
☎ 82-2-3774-0423
✉ khj@futures.co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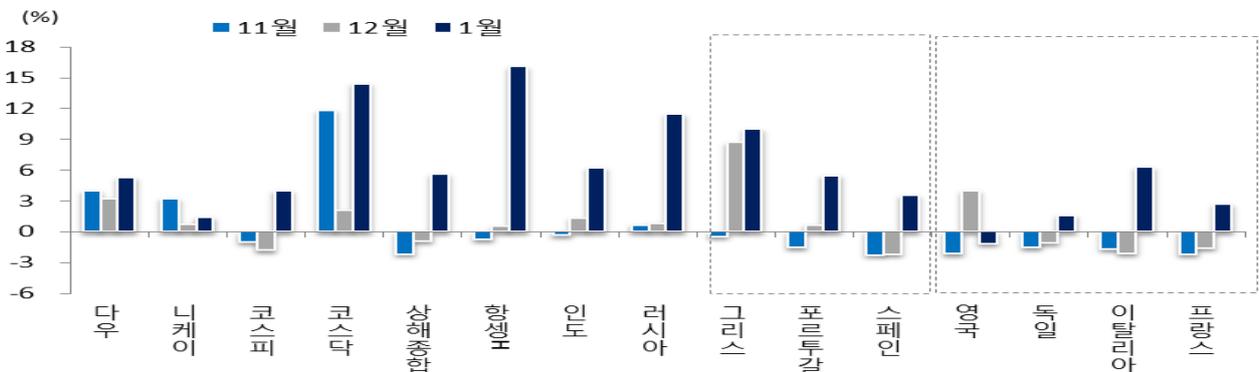
[1월 동향]

■ 1월 서유럽 증시는 양호한 경제지표에 따른 경제낙관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되며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. 영국 증시는 소프트 브렉시트 기대에 따른 파운드화 강세 및 건설사 파산 등의 이슈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차익실현이 더해지며 하락하였습니다. 그리스 증시는 낙관적인 경제 전망이 지속되는 가운데 추가 구제금융 지원에 대한 기대가 확대되며 전월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나갔습니다.

[2월 전망]

■ 연간 경제성장률이 2.5%를 기록하는 등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경제 낙관론을 지지하고 있는 점은 증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독일의 대연정 본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된 점 역시 유로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. 다만 ECB의 긴축우려가 부각되며 강세를 보이고 있는 유로화 및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무역규제 가능성은 서유럽 증시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차트. 주요국 증시 월간 등락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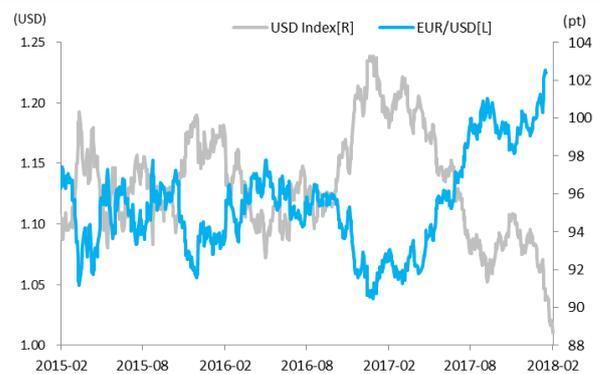
출처: 연합인포맥스, NH선물 리서치센터

차트. 서유럽 주요국 10년 국채수익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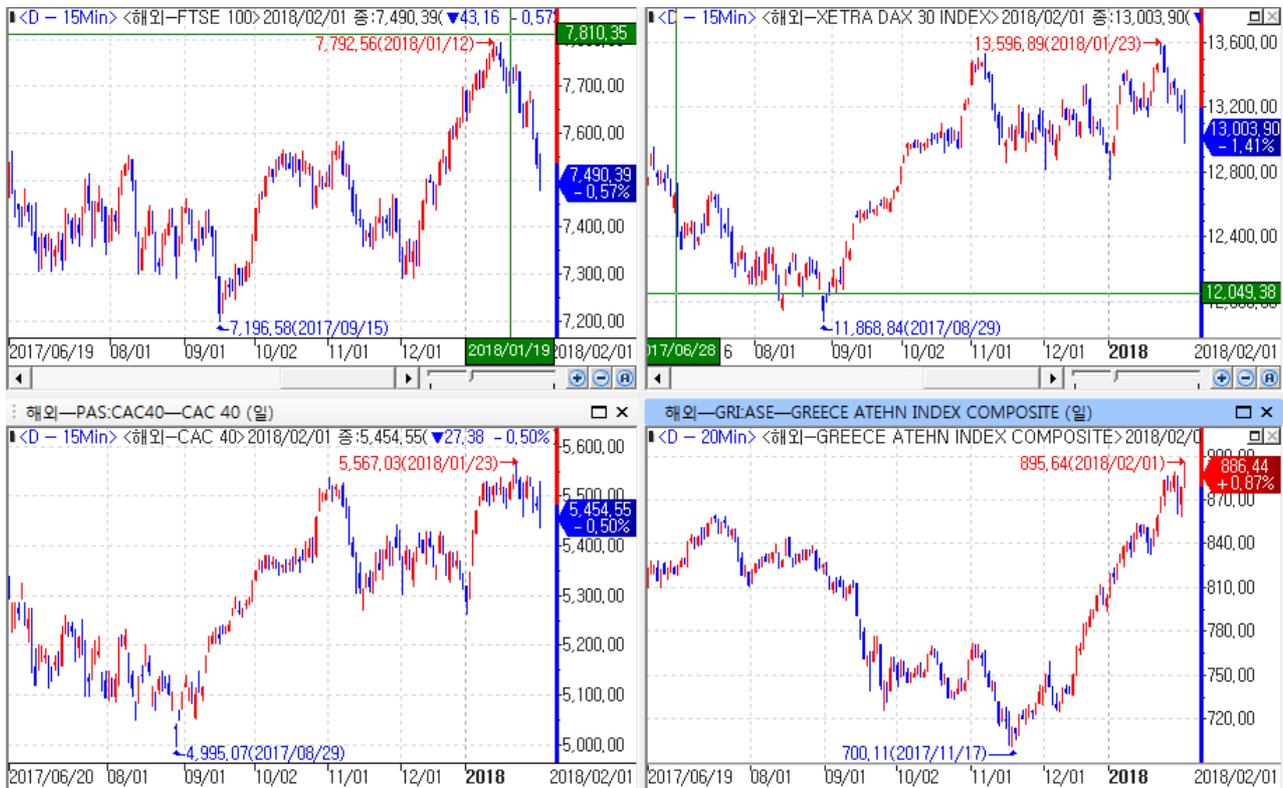
출처: Bloomberg, NH선물 리서치센터

차트. 유로-달러 환율, 달러인덱스



출처: Bloomberg, NH선물 리서치센터

차트. 서유럽 주요국 증시 추이 (순서는 시계방향으로 영국, 독일, 그리스, 프랑스)



출처: 연합인포맥스

[유로존 1월 주요 경제지표 및 이슈]

- ▶ 독일 12월 CPI 1.6%(YoY) 전월 1.7%, -0.7%(MoM) 전월 0.6%
- ▶ 유로존 1월 마르킷 제조업 PMI 59.6, 전월 60.6, 서비스업 PMI 57.6, 전월 56.6
- ▶ 유로존 1월 ZEW 서베이 예상 31.8 (전월 29.0), 1월 섀프츠 투자자기대지수 32.9(전월 31.1)
유로존 1월 경기체감지수 114.7(전월 115.3)
- ▶ 독일 1월 IFO 기업환경지수 117.6(전월 117.2), 경기동행지수 127.7(전월 125.5)
향후 6개월 기업전망지수 108.4(전월 109.4), ZEW 경기기대지수 20.4(전월 17.4)
- ▶ 유로존 11월 산업생산 MoM 1.0%(전월 0.4%), 산업생산 YoY 3.2%(전월 3.9%)
- ▶ 유로존 1월 CPI MoM -0.9%(전월 0.4%), CPI YoY 1.3%(전월 1.4%), 근원CPI YoY 1.0%(전월 0.9%)
11월 PPI MoM 0.6%(전월 0.4%), PPI YoY 2.8%(전월 2.5%)
- ▶ 유로존 11월 소매판매 YoY 2.8%(전월 0.2%). 소매판매 MoM 1.5%(전월 -1.1%)
- ▶ 유로존 1월 소비자기대지수 1.3(전월 0.5)
- ▶ 유로존 12월 실업률 8.7%, 전월 8.7%
- ▶ 1월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정책금리 동결(0.0%). 통화정책 선제안내 문구 유지.
- ▶ 메르켈 총리의 기민·기사당 연합과 사민당의 예비협상 타결 및 사민당 전대에서 예비협상안 승인. 이에 따라 본협상이 시작되며 독일의 정치적 리스크는 크게 완화.

본 자료는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당사 고객들에게 배포되는 자료로서 본 조사자료의 내용은 당사의 리서치센터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투자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를 하여야 하며, 본 자료는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그리고 파생상품은 높은 가격변동성으로 인해 단기간에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손실할 수 있습니다.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(www.futures.co.kr) 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